

일기를 통해 본 한말~일제강점기 양반소지주의 활동공간

- 柳瑩業의 『紀語』를 자료로 -

정 치 영*

Activity Space of Yangban Landlords during the Colonial Era - Based on the *Kieo* written by Ryu Hyeong-eop -

Chi-Young Jung*

요약 : 본 연구는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를 살았던 柳瑩業이 38년 동안 쓴 생활일기인 『紀語』를 이용하여 양반소지주의 일생에 걸친 활동공간(active space)을 분석하였다. 일기내용 중에서 외출기록을 추출하여 연령·외출 목적 및 목적지·기간 별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공간 활동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형업의 공간 활동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활동공간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청년기의 활동공간은 좁았고 특정한 장소에 편중되었으나, 장년기에 점차 확장되어 중년기에 가장 광역적인 공간 활동이 이루어졌다. 외출의 목적도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집안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 시대상황의 변천 등에 의해 비롯되었다. 한편 당일 외출과 숙박을 포함한 외출의 지역 범위를 통해 당시의 일일생활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활동공간, 외출, 생애주기, 일기, 구례, 일제강점기

Abstract : This paper uses the diary entitled *Kieo*, which was kept by Ryu Hyeong-eop for 38 years, to analyze the active space of small-scale Yangban landlords. Ryu lived during the period spanning from the end of the Taehan Empire through the colonial era.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 contents of *Kieo* into different sections which were divided according to different stages of the writer's life, his objectives, destinations, and periods, and based on the writer's life-cycle, strived to recreate his spatial activities. As a result, researcher was able to ascertain that Ryu's spatial activities gradually increased, and that his active space also continuously expanded. Ryu's active space during his youth was narrow and centered around certain specific places. However, this active space gradually increased as time went by. It was during the middle stages of his life that the volume of his spatial activities was the heaviest. In addition, the objectives of his outings also became more diversified over time. This change was originated in the larger changes in his roles within the family and community, as well as by the changes in the periodic situation. Moreover, the regional sphere of Ryu's outings, including his day and over nights trips, allowed the researcher to form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aily living area of the Yangban.

Key Words : active space, outing, life-cycle, diary, Gurye, colonial era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리학자들은 일찍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서구의 지리학에서

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인간 활동의 공간적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行態地理學'이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인간 활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1970년대 이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cyjung38@korea.ac.kr

‘時間地理學’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태지리학 또는 시간지리학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시공간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이재하, 1985; 최삼용, 1988; 김송미, 1997), 대개 현대인의 하루 또는 일주일간의 일상 활동을 다룬 것이었으며, 과거 사람들의 시공간 활동을 다루거나 일생을 단위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시공간 활동을 다룬 연구의 대상이 현대인, 그리고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제약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으며, 일생에 대한 자료는 더욱 수집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은 ‘日記’를 연구자료로,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를 살았던 한 양반소지주의 일생에 걸친 활동공간을 복원·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기를 기초자료로 사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기의 자료적 성격 때문이다. 일기는 개인이 매일 매일 경험한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며 문학의 한 장르로서 수필문학의 범주에 속하는데, 즉시의 기록이므로 기록의 사실성이 다른 어느 자료보다 강한 장점이 있다(정구복, 1996). 반면 일기는 필자 자신이 처한 지역적 시간적 조건에 구애받은 기록이며 필자의 가치관이 포함되므로 역사적 사실로 즉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행동과 생활을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담고 있으며 연속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행태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효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일기를 자료로 당시 사대부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촌락사회상 등을 밝힌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조은, 1991; 이해준, 1991; 전경목, 1996; 정순우, 1996; 김영희, 200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柳瑩業(1886-1944)이 쓴 생활일기인 『紀語』를 통하여 양반소지주의 일생에 걸친 활동공간을 복원하고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기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 활

동인 외출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편의상 본고에서는 류형업이 목적을 불문하고 그가 살던 마을인 오미리의 영역 바깥으로 출타했다 돌아온 것을 ‘외출’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간과 경유지에 관계없이 집을 출발해 오미리 바깥의 어떤 장소를 방문했다가 돌아온 것을 1회의 외출로 간주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어』가 38년간에 걸쳐 쓰여진 일기이나 첫 해와 마지막 해는 1-2개월분의 기록만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36년 동안(1899-1935년), 즉 14세부터 50세까지의 류형업의 공간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기어』를 정독하며¹⁾ 류형업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당시의 사회상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분석대상인 외출기록을 추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총 972건의 외출기록을 추출한 후, 이 기록들을 연령별, 목적별, 목적지별, 월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 때 목적지는 10단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만약 복수의 장소를 경유하여 돌아왔을 경우에는 외출의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문한 장소로 방문횟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외출 즉 공간 활동의 목적은 그 내용과 빈도를 감안하여 표 1과 같이 12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외출기록을 이용한 활동공간의 복원과 검토는 류형업의 일생을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청년기(13-24세)·장년기(25-39세)·중년기(40-50세) 등 세 시기로 나누어²⁾ 시도하였다. 또한 류형업의 家系,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는 역사학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였으며, 지역환경과 지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미리를 비롯한 구례군 일대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 柳瑩業과 『紀語』 그리고 ‘오미동’

1) 류형업의 생애와 『紀語』

『紀語』의 저자 류형업은 1886년 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오미동에서 文化柳氏 柳永桓(1869-1893)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이 오미동에 정착한 것은 그의 6대조인 柳爾胄(1726-1797)代로, 류이주가 樂安郡·龍川府·豊川府 등의 수령을 지내

표 1. 외출 목적의 분류

| 항 목 | 내 용 |
|-----------|--|
| 산소관리 | 성묘, 묘제, 開莎草, 移葬, 石物 설치, 偷葬 확인 등 |
| 조문 | 친척 및 친지의 상가 조문 |
| 친척 및 친지방문 | 문안인사차 방문, 집안일 논의, 결혼식 축하, 병문안 등 |
| 농작업 | 농작업 감독, 수확작업, 벌목, 식목 |
| 행정기관 방문 | 면사무소, 군청, 헌병대, 경찰서 등을 방문, 각종 행정업무 처리 - 군수·면장 면담, 세금·소송 문제, 토지·출생 신고 등 |
| 오락 | 詩會, 친렵, 유람, 사냥 |
| 의료 | 약국, 병원에 입원한 아들 간호 |
| 지역사회활동 | 面約, 鄉所, 지주회의, 학교 운동회, 鄉校행사, 기우제 등 참가 |
| 구매활동 | 시장 등에서 각종 물품 구입 |
| 재산관리 | 토지측량, 토지 매매, 가옥 매매 및 건축, 금융조합 |
| 교육 | 서적 대출, 백일장 참가, 자녀의 학교 방문 |
| 기타 및 미상 | 일기에 외출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 |

고 이곳에 정착하여 ‘雲鳥樓’³⁾를 비롯한 여러 채의 가옥을 짓고 농지를 확보하면서 오미동이란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후 柳氏家は 이곳에 세거하면서 구례 일대의 명문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이두순·박석두, 1993).

류형업은 7세에 부친이 사망했기 때문에 조부인 柳濟陽(1846-1922)의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며, 집안의 장손으로써 고향에서 宗家를 지키며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과 가통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을 보내었다. 따라서 그는 특별한 권력이 없으며, 이념적으로나 사회활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부각되는 성향을 고집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대의 평범한 농촌지식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해준, 1991). 14세에 혼인하여 2남 6녀를 두었고, 조부가 환갑이 지난 20대부터 집안 살림을 맡았으며, 조부가 사망한 37세 이후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한말·일제강점기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계를 돌보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이러한 류형업의 평범함은 당시 양반소지주의 일상생활을 엿보는데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紀語』는 류형업이 13세 때인 1898년부터 51세 때인 1936년까지 38년 간 쓴 생활일기로, 卷1을 제외하면 매년 일기를 한 권으로 묶었는데, 합본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모두 39권 3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류형업이 일기를 쓰게 된 것은 조부 류제양의 권유에 의해서였으며,⁵⁾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다. 다만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1898년에는 12월의 기록만 있으며, 마지막 해인 1936년에는 2월까지의 일기만 남아 있다.

『기어』의 내용체계는 날짜 별로 먼저 간지를 적고, 그 날 있었던 일과 느낌을 쓴 다음 마지막에 날씨를 적었다. 매일 매일의 기록은 관혼상제·성묘 등 집안의 대소사, 농작업, 물품매매, 자녀의 교육문제, 가족들의 질병 및 치료, 지역의 여러 모임, 내방객 등 매우 다양한데, 특히 자신의 외출기록은 목적지, 경유지, 동반자, 외출목적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 ‘五美洞’과 그 주변의 지역환경

류형업이 태어나 일생을 보낸 오미동은 행정구역상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속한다. 오미리는 오미동·내죽·하죽·환동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오미동이 중심이 되는 촌락이다. 오미동은 북쪽으로 지리산을 등지고 남쪽으로는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섬진강에 이르기까지 ‘牡旨坪’이라는 해발 50m 내외의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마을 동쪽으로는 지리산 노고단에서 발원한 덕은천이 흘러 용수원으로는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오미리는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어우러져 매우 좋은 생활여건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풍수 상 손꼽히는 명당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가 ‘金環落地’의 吉地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을 아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미리는 예로부터 人家가 드문 山村에 불과했으나, 마을의 중앙부는 鄭鑑錄에서 말한 소위 풍수 상의 金環落地라 불려져 왔다. 즉 ‘이곳에 거주하면 예기치 않은 재산이 모이고 자손 중에 大官이 나온다’는 전설이 4-5년 전부터 만연하여 이주하는 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지금은 인구가 700명에 다다르게 되었다.⁶⁾

근년에 온 地官이 이 지역을 돌아보고 畝環落地를 얻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畝環락지를 얻었다고 하며 새로이 터를 정하여 이미 들어와서 살거나 혹은 바야흐로 집을 건축하고 있다.⁷⁾

오미리는 남쪽으로는 금내리·용두리, 서쪽으로는 구산리·파도리, 동쪽으로 마산면 사도리 등의 마을로 둘러싸여 있다. 이중 구산리·파도리·사도리는 오미리와 마찬가지로 지리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들로, 류씨가 이들 마을에 농경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마을의 뒷산에 해당하는 孝竹嶺·猛虎嶺·靑龍嶺·長作嶺 등지에 류씨가 묘소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금내리와 용두리는 섬진강 변에 위치한 마을들로, 특히 용두리의 龍臺는 섬진강이 내려다보이고 아름다워 류씨가를 비롯해 구례군내의 선비들이 자주 찾던 곳으로, 1917년에 '龍湖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자주 詩會를 열기도 하였다.

한편 류씨가 토지면 내의 오미리·파도리·송정리·구산리 등은 물론 인근의 마산면·간문면 등지에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림 2. 운조루에서 바라 본 뚝뚝

(이두순·박석두, 1993), 집안의 묘소 역시 간문면과 이웃한 곡성군에도 조성되어 있었다. 특히 곡성군에는 류씨의 인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류형업의 외가 및 처가도 곡성에 있었다.

3. 생애주기별 활동공간과 그 특성

1) 청년기: 14-24세(1899-1909년)

표 2에서 보듯이, 류형업은 생애주기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 14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시기에 결혼을 하고 1남1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 기간 동안의 일기를 통해 확인한 총 외출건수는 169건으로 연평균 15.4회 정도의 외출을 기록하였다. 가장 외출이 많았던 해는 24세 때인 1909년으로 24회였고 가장 적었던 해는 16세였던 1901년으로 9회였다.

우선 청년기의 외출기록을 목적지별로 정리해 보면, 전체 169회 중 토지면 내로의 외출이 80회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오미리와 바로 이웃한 파도리가 36회로 가장 많았고 구산리와 문수리가 각각 19회와 18회로, 이들 3개리를 합치면 무려 73회에 달하였다.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의 외출은 총 74회에 이르나, 역시 몇몇 장소에 치우쳐 간문면 운천리와 월전리, 마산면 사도리 등 3곳이 이중 44회를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한편 구례군 바깥으로의 외출은 모두 15회에 그쳤으며, 그중 곡성군 석곡면 방승리, 오곡면 명산리 등 두 곳이 13회를 점해 지역적으로 대단히 편중되어 있었다. 나머지 2회는 하동군 화개면의 쌍계사와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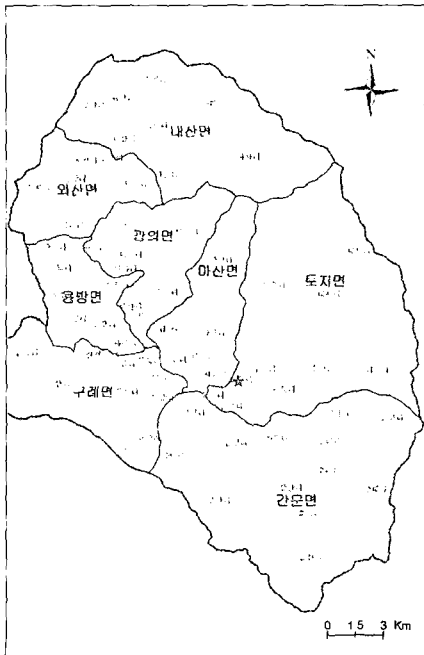


그림 1. 구례군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표 2. 류형업의 연대기

| 연대 | 나이 | 주요 사건 | 연대 | 나이 | 주요사건 |
|------|-----|------------------|------|-----|-----------------------------------|
| 1886 | 1세 | 오미리에서 출생 | 1922 | 37세 | 조부 류제양 사망 |
| 1899 | 14세 | 곡성 거주, 해주 오씨와 결혼 | 1923 | 38세 | 장녀 결혼 |
| 1905 | 20세 | 증조모 사망, 누이 혼인 | 1924 | 39세 | 오녀 季阿 출생 |
| 1906 | 21세 | 장남 曾教 출생 | 1925 | 40세 | 장인 사망, 족보 편찬을 위해 충북 진천에 50일 가량 머무 |
| 1909 | 24세 | 장녀 阿榴 출생 | 1927 | 42세 | 육녀 末榴 출생 |
| 1911 | 26세 | 차남 曾孝 출생 | 1928 | 43세 | 차남 결혼 |
| 1914 | 29세 | 차녀 출생 | 1929 | 44세 | 손자 鐘澤 출생 |
| 1916 | 31세 | 삼녀 順阿 출생 | 1930 | 45세 | 차남 사망, 차녀 결혼 |
| 1917 | 32세 | 서울 방문 | 1932 | 47세 | 조모 사망 |
| 1920 | 35세 | 사녀 榴阿 출생, 장남 결혼 | 1944 | 59세 | 사망 |

자료: 『紀語』에서 추출하여 정리.

양근 창평면 장화리의 친지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또한 출발지인 오미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활동공간을 분석해 보면, 오미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속하는 범위로의 외출이 46.7%, 3-6km, 6-9km의 범위에 해당하는 곳이 각각 33.1%, 11.3%를 차지하였고, 9km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8.9%에 불과하여,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간 활동이 현저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류형업의 청년기

에 걸친 활동공간은 지역적으로는 도지면과 그 인근지역, 거리로는 오미리를 중심으로 반경 6km 내에 걸치는 범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활동공간이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도 특정한 장소에 편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공간 활동의 목적에 대한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다. 외출기록을 목적별로 정리하여 그 비율을 구해 보면(표 3 참조), 산소 관리가 48.5%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였고, 그 다음은 오락(17.8%), 친지 및 친척방문(15.4%), 농작업(8.9%)의 순이었다. 양반소지주가의 젊은 종손으로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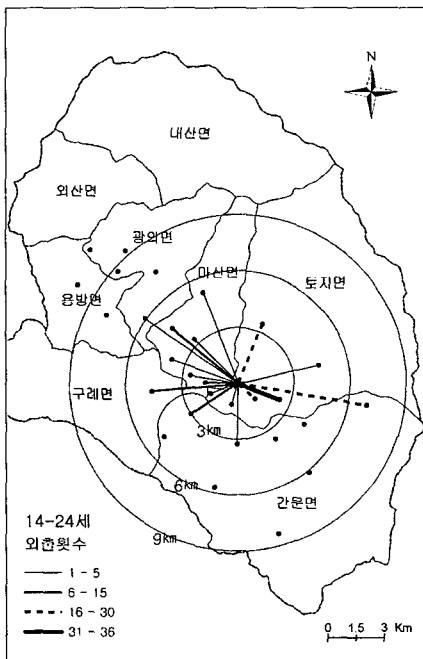


그림 3. 청년기의 목적지 별 외출횟수

표 3. 외출목적 별 외출횟수 및 비율

| 외출목적 | 외출횟수 및 비율(%) | | |
|-----------|--------------|-----------|----------|
| | 청년기 | 장년기 | 중년기 |
| 산소관리 | 82(48.5) | 152(35.3) | 94(25.3) |
| 조문 | 2(1.2) | 16(3.7) | 32(8.6) |
| 친척 및 친지방문 | 26(15.4) | 27(6.3) | 79(21.2) |
| 농작업 | 15(8.9) | 16(3.7) | 8(2.2) |
| 행정기관 방문 | 0(0.0) | 69(16.0) | 48(12.9) |
| 오락 | 30(17.8) | 68(15.8) | 58(15.6) |
| 의료 | 0(0.0) | 5(1.2) | 1(0.3) |
| 지역사회활동 | 2(1.2) | 9(2.1) | 8(2.2) |
| 구매활동 | 0(0.0) | 10(2.3) | 14(3.8) |
| 재산관리 | 4(2.4) | 32(7.4) | 10(2.7) |
| 교육 | 3(1.8) | 0(0.0) | 0(0.0) |
| 기타 및 미상 | 5(3.0) | 27(6.3) | 20(5.4) |
| 계 | 169(100) | 431(100) | 372(100) |

장 중요했던 일은 성묘와 묘제 등 조상의 산소를 관리하고, 집안과 지역의 어른을 모시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조부를 비롯한 집안어른과 동반해 주변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친림을 하거나 詩를 짓는 등의 오락활동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청년기의 공간 활동 목적은 활동공간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몇 개 항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또한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기의 활동공간과 그 목적이 모두 특정한 장소와 항목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류형업의 발길이 가장 잦았던 토지면 파도리·구산리, 마산면 사도리, 간문면 운천리·월전리 등지는 류씨가 산소가 몰려 있고 친척 및 친지가 많이 살던 곳이며, 토지면 문수리 역시 사회·친립 등 오락을 위해 조부나 친구와 자주 찾던 他不川⁸⁾이 있는 곳이다. 구례군 외의 지역 중에서 류형업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곡성군의 방송리와 명산리에는 각각 류씨가 묘소와 그의 처가가 있었다.

한편 청년기의 외출횟수를 월별로⁹⁾ 살펴보면(표 4 참조), 1월·10월의 외출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6.0·20.1%로 다른 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1월은 설을 맞아 친지 및 친척에게 인사를 드리고 성묘를 하며, 10월은 묘사 등으로 산소를 찾는 일이 가장 많은 달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외출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류형업은 청년기 동안 1박 이상의 숙박을 포함하는 외출을 총 17회 기록하였다. 연평균 1.5회 정도이며, 구례군 바깥으로 나갔다가 온 15회의 외출은 모두 1박 이상을 하였다. 이러한 장거리 외출은 대부분 처갓집이나 외가를 방문하고 묘사를 지내기

위해 곡성군을 방문한 것이며, 이 경우 일정은 대개 4-5일이었으나 길게는 9박10일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이 때 교통수단은 도보가 대부분이었으며, 간혹 말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숙박을 포함한 외출 중 오락을 위한 것으로는 화염사와 하동 쌍계사를 유람한 것이 각각 한 차례 있었다. 화염사는 18세 때 1박2일로 숙부 등과 함께 다녀왔으며, 쌍계사에는 17세 때 6박7일의 일정으로 역시 집안 어른들과 거제수나무 수액을 먹으러 다녀왔다.¹⁰⁾

2) 장년기: 25-39세(1910-1924년)

류형업의 장년기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의 15년간으로, 이 기간은 일제에게 국권이 빼앗기는 등 국가적으로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격동기였지만, 류형업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우선 기존의 1남1녀 외에 1남4녀의 자녀를 더 낳았고, 장남과 장녀는 혼인을 하였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대 후반부터 연로한 조부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집안의 살림을 맡았고, 조부가 사망한 37세부터는 류씨가를 이끄는 명실상부한 가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32세 때인 1922년에는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류형업의 총 외출건수는 431건, 연평균 외출횟수는 28.7회로, 15.4회였던 청년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외부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외출이 많았던 해는 39세 때인 1924년으로 48건이었고 가장 적었던 해는 26세였던 1911년으로 13건이었다.

장년기의 외출 목적적 즉 활동공간을 토지면 내 지역,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 지역, 구례군 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44.3·51.3·4.4%였다. 이것은 청년기가 각각

표 4. 월별 외출횟수 및 비율

| 생애주기 | 월별 외출횟수 및 비율(%) | | | | | | | | | | | | 계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청년기 | 44 (26.0) | 12 (7.1) | 18 (10.7) | 22 (13.0) | 7 (4.1) | 0 (0.0) | 2 (1.2) | 12 (7.1) | 11 (6.5) | 34 (20.1) | 6 (3.6) | 1 (0.6) | 169 |
| 장년기 | 56 (13.0) | 34 (7.9) | 53 (12.3) | 59 (13.7) | 29 (6.7) | 13 (3.0) | 20 (4.6) | 48 (11.1) | 47 (10.9) | 39 (9.0) | 18 (4.2) | 15 (3.5) | 431 |
| 중년기 | 27 (7.3) | 43 (11.6) | 46 (12.4) | 42 (11.3) | 26 (7.0) | 12 (3.2) | 17 (4.6) | 45 (12.1) | 41 (11.0) | 36 (9.7) | 20 (5.4) | 17 (4.6) | 372 |

47.3·43.8·8.9%였던 것과 비교할 때, 토지면 내 지역과 구례군 외 지역에서의 활동은 감소한 데 반해,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 지역에서의 활동은 증가한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토지면 내의 경우에는 구산리, 파도리, 문수리 등 3개리에서의 활동이 압도적이어서 청년기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의 활동은 그 비중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목적지가 보다 다양해져 청년기에는 전혀 찾지 않았던 곳을 장년기 들어 9곳이나 새롭게 방문하였다.¹¹⁾ 또한 행정기관, 시장 등의 출입을 위해 구례읍내를 방문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구례군 외 지역으로의 외출은 청년기에 비해 비중은 낮아졌으나, 표 5와 같이 청년기의 곡성 중심에서 담양·화순·정읍·임실을 비롯하여 서울까지 그 목적지가 다양해졌다.

한편 오미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각각 반경 3km 이내, 3-6km, 6-9km, 9km 이상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42.5·11.4·4.4%였다. 각각 46.7·33.1·11.3·8.9%였던 청년기와 견주어 보면, 반경 3km 이내의 활동은 줄고 상대적으로 3-6km 범위의 활동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면 내의 활동은 감소하고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의 활동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류형업의 장년기에 걸친 활동공간은, 오미리를 중심으로 반경 6km 내외의 범위에 머문 청년기와 거리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장소별로는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 지역과 구례군 외 지역으로 활동공간이 상당히 확대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그림 4 참조).

장년기의 공간 활동을 그 목적별로 나누어 보면, 표 3과 같이 35.3%를 나타낸 산소 관리가 그 비중이 줄긴 했으나 청년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특히 조부가 돌아가신 후에는 매달 2-3차례 이상 조부의 묘소를 살피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오락 역시 16.0%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였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오락행태는 청년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나, 청년기에 비해 오락장소가 보다 다양해져 섬진강 변의 용대 등을 즐겨 찾았다. 가장 주목할 점은 청년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행정기관 방문이 15.8%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행정기관을 찾아야 할 일이 그 만큼 증가했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류형업이 집안을 대표하여 각종 행정적인 사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을 찾은 이유는 아이의 출생신고와 예방접종을¹²⁾ 비롯해 재산 신고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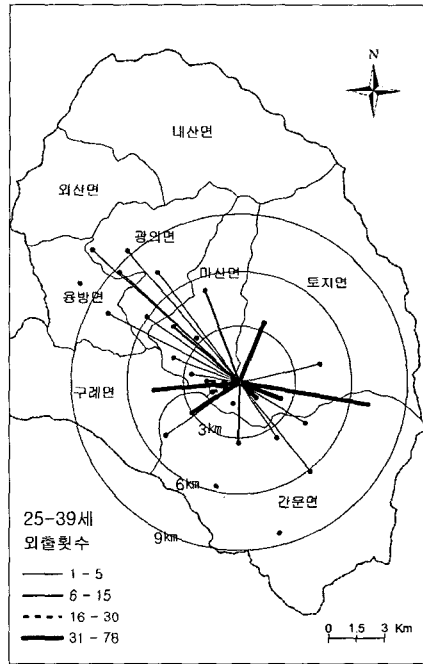


그림 4. 장년기의 목적지 별 외출횟수

표 5. 구례군 바깥 지역으로의 외출횟수

| 생애주기 | 지역 별 외출횟수 | | | | | | | | | | | | | | | |
|------|-----------|----|----|----|----|----|----|----|----|----|----|----|----|----|----|----|
| | 곡성 | 담양 | 화순 | 순천 | 보성 | 광주 | 광양 | 여수 | 남원 | 순창 | 정읍 | 임실 | 하동 | 진천 | 서울 | 계 |
| 청년기 | 13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15 |
| 장년기 | 12 | 1 | 1 | 0 | 0 | 0 | 0 | 0 | 0 | 0 | 1 | 1 | 2 | 0 | 1 | 19 |
| 중년기 | 8 | 0 | 0 | 2 | 4 | 1 | 1 | 2 | 3 | 1 | 0 | 0 | 4 | 1 | 0 | 27 |
| 계 | 33 | 2 | 1 | 2 | 4 | 1 | 1 | 2 | 3 | 1 | 1 | 1 | 7 | 1 | 1 | 61 |

세금 납부, 종자 교환, 지주회의 참석 등 다양하였다. 또한 청년기에는 미미하였던 재산관리를 위한 활동이나 물건 구매를 위한 시장출입이 잦아진 것도 그가 장년기 들어 조부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책임진 데에 원인이 있다.

장년기의 월별 외출횟수는 표 4와 같다. 4월이 전체 중 13.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3·8·9월의 순이긴 하나, 서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월과 10월에 편중되어 있던 청년기와는 자못 다른 양상이며, 전반적으로 여름·겨울보다는 봄·가을에 외출이 활발한 편이다. 장년기의 숙박을 포함한 외출은 모두 28회에 연평균 1.9회 정도였는데, 이것은 청년기의 1.5회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소요기간은 청년기와 비교해 많이 늘어난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묘사를 지내기 위해 곡성에 가는 경우에도 친지집 등에 들리 며 10일 가량을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2세 때인 1917년의 서울행은 종조부 상을 조문하기 위한 것으로, 이리틀 경유해 기차로 오고갔으며, 19박20일의 일정이었다. 이 때 류형업은 생애 처음으로 기차를 타 보았다.¹³⁾ 장년기 동안 가장 길었던 외출은 돌아가신 조부의 초상화를 제작하기 위해 38세 때 정읍에 다녀온 것으로, 순창·익산 등을 경유하며 24일간 여행하였으며, 이때도 정읍·신태인, 신태인·익산 등의 구간은 호남선 기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류형업이 자동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기에 등장하는 첫 기록은 그가 35세 때인 1920년의 일로, 11월 8일 구례 읍내에 갔다가 밤늦게 비를 만나 부득이 35전을 주고 자동차로 귀가한 일이다. 같은 달에 있었던 장남의 결혼식에도 2박3일간 65원에 자동차를 대절하여 화순군 화순면 지곡¹⁴⁾까지 왕복하였다.¹⁵⁾

3) 중년기: 40-50세(1925-1935년)

본고에서 채택한 생애주기 구분에서는 중년기가 40세에서 59세까지이나, 류형업은 『紀語』에 50세까지의 기록만 남겼다. 그는 1925년에서 1935년에 이르는 11년간 6번째 딸을 낳고 첫손자를 얻으나, 차남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역 유지로서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한편, 집안의 대소사 중 일부를 점차 장남에게 위임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기간의 총 외출건수는 372건으로, 연평균 33.8회 정도의 외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기의 28.7회보다 연간 5회 정도 증가한 수치로 본고에서 분석한 세 시기 중 공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 제일 외출이 많았던 해는 43세 때인 1928년으로 44건이었고, 가장 적었던 해는 48세였던 1933년으로 22건이었다.

중년기 활동공간의 지역별 비율은 토지면 내 지역,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내 지역, 구례군 외 지역이 각각 46.2·46.5·7.3%를 점하여, 장년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토지면 내에서는 여전히 구산리, 파도리, 문수리 등 3개리가 주된 활동공간이었다.¹⁶⁾ 토지면을 제외한 구례군 지역에서는 각종 관공서와 시장이 위치한 읍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며,¹⁷⁾ 조상의 묘소가 있는 간문면 운천리·월전리의 비중도 계속해서 높은 편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구례군 외 지역으로, 그 비중은 청·장년기와 큰 차이가 없으나, 활동공간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다는 점이다. 장년기 들어 류형업의 활동공간은 임실·정읍·화순 등으로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조상의 묘소와 외가, 처가가 있는 곡성에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¹⁸⁾ 그러나 중년기의 구례군 바깥의 활동공간은 곡성의 비중이 준 반면, 보성·순천·광주·광양·여수 등 전남 일원은 물론, 전북 남원과 순창, 충북 진천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표 5 참조).

류형업의 공간 활동을 오미리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반경 3km 이내, 3-6km, 6-9km, 9km 이상의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9.5·39.2·13.4·7.9%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같은 범위에 각각 41.7·42.5·11.4·4.4%였던 장년기와 비교해 3km 이내, 3-6km 등 오미리에서 가까운 거리 내의 활동은 줄고 상대적으로 장거리를 오가는 공간 활동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구례군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며, 류형업의 공간 활동이 중년기에 가장 광역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중년기의 외출목적은 산소관리(25.3%), 친척 및 친지방문(21.2%), 오락(15.6%), 행정기관 방문(12.9%), 조문(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소관리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으나, 성묘나 묘제를 아들이 대신하는 예가 늘어나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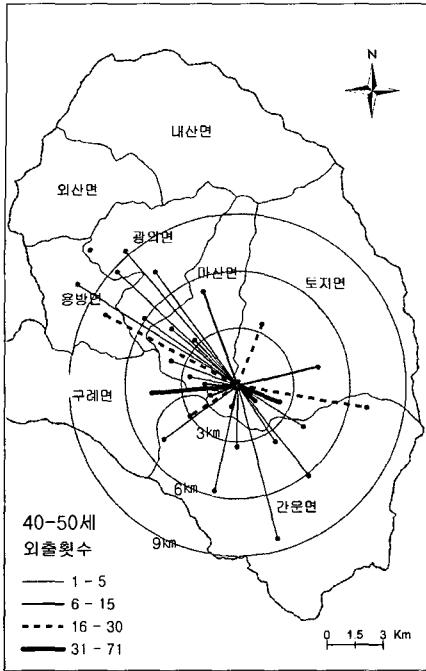


그림 5. 중년기의 목적지 별 외출횟수

비중이 장년기의 35.3%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대신 친척 및 친지방문, 조문 등의 비중이 청·장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종손으로써 집안을 대표하여 찾아보고 돌보아야 하는 친척과 지역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방문과 오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하였는데, 행정기관은 군청·면사무소 출입이 빈번하였고, 소송사건 때문에 헌병대·경찰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중년기의 월별 외출횟수는 장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봄·가을에 외출이 많고 상대적으로 여름·겨울은 적은 편이다. 청·장년기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월 외출횟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1월에 주로 이루어지는 성묘를 아들에게 맡긴 것, 중년에 접어들면서 찾아다니며 신년인사를 하기보다는 집에서 받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 원인이 되었다.

류형업은 중년기의 11년 동안 모두 65회에 이르는 1박 이상의 숙박을 포함하는 외출을 하였다. 연평균 약 6회에 달하는 횟수로, 장년기의 연평균 1.9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이다. 외출 목적 및 목적지에 있어서도 주로 묘사와 친지 방문을 위해 곡성일대를 찾던 것에서 벗어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그 목적에서는 조문을 위한 외출이 증가하였고 토지와 가옥매매를 포함한 재산관리, 경승지 및 사찰 유람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그 목적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거리 외출 뿐 아니라 구례군 내에 있는 사위나 조카 등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바로 귀가하지 않고 하루 이틀 머물다 오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장성한 아들 덕분에 집안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년기에 가장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것은 40세 때인 1925년으로, 文化 柳氏 大同譜의 편찬 및 인쇄 작업을 위해 譜所¹⁹⁾가 설치되었던 충북 진천군 진천면 행정리에 약 2개월 간 머물렀다.

중년기 들어 장거리 외출이 증가한 데는 이 시기의 교통 발달에 힘입은 바가 컸을 것이다. 류형업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1925년부터 1935년에 이르는 시기는 일제의 대대적인 신작로 정비사업으로 자동차교통이 대중화되어가는 때였다. 1930년을 전후하여 장거리 교통은 철도가 우위에 있었지만, 지역간 및 지역 내 교통은 자동차교통이 철도교통을 능가해가는 상황이었다(羅博志, 2004, 73-74).

각각 1917년과 1920년부터 철도와 자동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류형업은 중년기 들어 구례군 바깥으로의 장거리 외출에 철도나 자동차를 자주 이용하였다. 그러나 철도는 구례를 통과하는 남원-순천간의 전라선 구간이 1936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해 이용도가 낮았다. 류형업이 중년기에 여러 번 이용한 철도구간은 경전선의 보성-순천간 노선으로, 보성 읍어면에 있는 사돈댁²⁰⁾ 등을 방문할 때 이용하였다. 자동차는 그 이용횟수가 훨씬 많아, 하동·순천·여수·보성·화순·담양 등을 오고 갈 때 이용했으며, 1932년부터는 묘제를 지내러 곡성에 갈 때에도 자동차를 탔다. 기차와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중년기의 장거리 외출은 청·장년기의 그것에 비해 평균 이동거리가 더 길어졌으나 일정은 오히려 단축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

를 살았던 柳燾堯이 38년 동안 쓴 생활일기인 『紀語』를 통하여 양반소지주의 일생에 걸친 활동공간(active space)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기내용 중에서 외출기록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류형업의 일생을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활동공간의 복원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류형업의 공간 활동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활동공간 역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청년기의 활동공간은 자신이 살고 있던 토지면 내 지역, 그리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대략 반경 6km 이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 머물렀고 특정한 장소에 편중되었으나, 장년기에는 활동공간이 구례군 전역의 다양한 장소로 상당히 확대되었다. 공간 활동이 가장 광역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중년기로, 특히 구례군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공간 활동의 목적도 나이가 들수록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에는 산소관리를 위한 외출횟수가 전체의 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외출목적이 편중되었다. 장년기에도 산소관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점하였으나, 행정기관 방문, 재산관리 등도 중요한 외출목적이 되었으며, 중년기에는 산소관리의 비중이 줄고 친지방문과 조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오락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 활동 목적의 변화에는 집안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 시대상황의 변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거주지를 중심으로 7-8km 내의 외출은 당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의 외출은 대개 숙박을 포함하였다. 특히 구례군 바깥으로 외출하는 경우에는 전부 하루 이상 숙박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일생활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숙박을 포함한 외출도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목적 및 목적지도 다양해졌다. 중년기에는 이러한 장거리 외출에 기차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청·장년기에 비해 평균 이동거리는 더 길어졌으나 일정은 오히려 단축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한 개인의 일기만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상, 특히 공간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교통상황과 그 혁신과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장거리 여행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분석하는 등 연구전개 상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註

- 1) 본 연구에서는 199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두 권으로 발간한 국역본 『기어』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지명·인명 등이 불분명한 부분은 200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영인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 2) 생애주기의 구분은 학문분야나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데, 여기에서는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릭슨(Erickson)의 유아·소년기(출생-12세), 사춘·청년기(13-24세), 장년기(25-39세), 중년기(40-59세), 노년기(60세 이상) 등 5시기로 나눈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
- 3) 1770년대에 지어진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으로 오미동 柳氏家の 宗家이며, 중요민속자료 8호로 지정되어 있다.
- 4) 총 면수는 1,732면으로, 각 권 당 약 45면 정도의 분량으로 편찬되어 있다.
- 5) 류제양 역시 6세 때(1851년)부터 죽기 직전인 77세 때(1922년)까지 72년 간의 기록인 『誌』이란 일기를 남겼으나, 이 중 1851-1868년까지는 1년 단위로 그 해의 중요한 일을 간단히 적고, 1869-1913년까지도 한 달에 적게는 한 두 번, 많게는 7-8일 정도만 기록하고 있어 일기라기 보다는 비망록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紀語』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있어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 6) 朝鮮總督府, 1932, "新興部落," 朝鮮總督府調査月報, 3(12), 51.
- 7) 『紀語』 卷21, 1919년 9월 19일.
- 8) 토지면 문수리를 흐르는 덕은천의 별칭이다.
- 9) 여기에서는 모두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 10) 거제수나무는 자작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 고로쇠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수액을 사람들이 음용한다. 당시 류형업과 그 친척들은 쌍계사에 머물며 한 사람당 1냥 5전씩을 주고 거제수 수액을 사먹었다.
- 11) 광의면 구만리·방광리·연파리·대전리, 간문면 죽마리·간문리·양천리·수평리, 용방면 용강리 등 9개 리이다.
- 12) 면사무소에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하였다.
- 13) 당시 류형업은 전주에서 이리까지 48전을 주고 기차를 탄 후, 다시 이리에서 서울까지 3원 18전의 요금을 내고 기차여행을 했는데, '기차 안이 매우 깨끗하였고 마음대로 앉고 누울 수 있었다'고 그 감상을 적고, 모두 9 군데의 굴을 지나 서울에 도착했다고 기록하였다.

- 14) 현재의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로, 장남 류증교의 처가이다.
- 15) 이 때 류형업 자신은 가지 않았고, 류형업의 조부, 중부가 아들 증교를 데리고 갔다. 자동차의 종류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車夫 2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 탔다고 하며, 추운 날씨에 200리가 넘는 길을 당일에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자동차 덕분이라고 일기에 적고 있다.
- 16) 총 372건의 외출기록 중 150건을 차지하였다.
- 17) 읍내로의 외출은 71건으로 단일 장소로는 가장 많았다.
- 18) 장년기의 구례군 외 지역으로의 외출건수는 총 19건이었는데, 이중 11건이 곡성으로의 외출이었다.
- 19) 족보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만든 사무소를 말하며, 譜廳이라고도 한다.
- 20) 차남 증효의 처가가 현재의 보성군 울어면 울어리에 있었다.

文 獻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2000, 求禮文化柳氏生活日記, 한국학자료총서 2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김송미, 1997, “광주시 주부의 개인속성과 일상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2(2), 217-228.

김영희, 2000, “일제 말기 향촌 儒生의 '日記'에 반영된 현실인식과 사회상,” 한국근현대사연구, 14, 91-130.

도도로키 히로시(轟博志), 2004, 20세기 전반 韓半島 道路交通體系 變化 -“新作路”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염정섭, 1997,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220-263.

이두순·박석두, 1993, 한말-일제하 양반 소지주가의 농업경영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재하, 1985, “대학생의 일상행태에 관한 시간지리적 연구,” 죽파 홍순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339-421.

이종범, 1994, 19세기말 20세기초 향촌사회구조와

조세제도의 개편 -구례군 토지면 오미동 柳氏家 文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해준, 1991, “구례 雲鳥樓 柳氏家의 生活日記考 -한말 일제시기 촌락과 농민생활상-,” 전남문화재, 4, 전라남도, 199-216.

이해준, 1996,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 본 촌락사회상,” 정신문화연구, 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9-117.

전경목, 1996,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정신문화연구, 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5-71.

정구복, 1996,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24.

정순우, 1996, “조선후기 ‘營建日記’에 나타난 학교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1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3-98.

조은, 1991, “일제하 향촌 반가의 가족생활의 변화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를 중심으로-,” 여성·가족·사회, 창간호, 여성한국사회연구회, 61-83.

최삼용, 1988, “시간지리학에 관한 연구 -도시주민의 시공간생태분석을 중심으로-,” 사대논문집 인문과학편, 16, 부산대학교, 187-2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求禮 柳氏家의 생활일기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求禮 柳氏家의 생활일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최초투고일 04. 09. 26

최종접수일 04. 12. 11

교신 : 정치영,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메일: cyjung38@korea.ac.kr, 전화: 011-669-4821, 팩스: 02-926-8385)

Correspondence : Chi-Young Jung,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cyjung38@korea.ac.kr, phone : 011-669-4821, fax: 02-926-8385)